1 서민들은 왜 민화를 즐겼을까요?

민화에 담긴 서민들의 소망

민화는 말 그대로 백성의 그림이에요. 조선 시대 서민들은 민화로 집을 장식하며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은 다양한 주제의 민화들을 남겼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림,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림,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라는 그림, 복을 기원하는 그림도 있었어요.

나쁜 것들을 쫓는다고 여긴 호랑이가 무섭지 않고 고양이처럼 친근하지요?

〈까치와 호랑이〉

효도할 '효'자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효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자도〉

글자를 무늬처럼 만들었어요.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백수백복도〉

책을 많이 그려 놓았어요. 조선 시대에도 교육이 무척 중요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책거리〉

? 호기심 뿜뿜

서민들이 민화를 집에 걸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그림을 사서 집에 걸기 시작했어요. 꽃과 새 그림, '효'자가 쓰여 있는 그림, 긴 수명과 복을 기원한 그림, 까치와 호랑이 그림 등 말이에요. 한마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서민들의 바람이 담긴 그림들이었지요. 주로 해와 달, 꽃, 나무, 까치, 호랑이, 물고기 등을 그렸답니다.

2 김홍도와 신윤복

조선 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

김홍도의 스승이자 뛰어난 화가였던 강세황은 김홍도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단원은 어릴 적부터 그림으로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인물, 산과 나무, 꽃, 동물에 이르기까지 옛 사람과 비교하여도 그와 겨룰 사람이 거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김홍도는 스승 강세황의 추천으로 궁중의 도화서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도화서에서도 김홍도는 그림 실력으로 유명해졌어요. 20대에 영조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인정받았죠.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김홍도의 실력을 아꼈어요. 정조는 김홍도에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도록 했지요. 농사짓는 모습, 나들이 가는 모습 등 김홍도가 그린 그림에는 백성들의 활기찬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도화서
조선 시대에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던 관청

?호기심 뿜뿜

조선 시대에는 왜 나라에서 도화서라는 곳을 운영했나요?

오늘날에는 정부의 중요한 행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바로 그림이에요. 조선 정부의 중요한 행사나 임금님의 초상화 등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도화서를 설치하고 화가를 뽑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도화서 출신 화가는 풍속화를 주로 그린 김홍도와 신윤복이랍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그린 김홍도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의 주인공은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서당에서 훈장님께 혼나는 아이의 표정, 씨름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벼타작을 하는 모습 등 김홍도의 그림 속 서민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해요. 정말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지요?

〈서당〉

〈씨름〉

〈벼타작〉

신윤복,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화폭에 담다

조선 시대 미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른쪽 그림의 제목은 〈미인도〉예요. 달걀형의 얼굴에, 눈·코·입은 작은 편이군요. 목은 가늘고 길고, 어깨는 좁고요. 오늘날의 전형적인 미인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매우 고와 보여요. 흰색의 저고리와 풍성한 옥색 치마는 여인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네요. 차갑고 도도한 표정까지 무척 매력적이에요. 조선 시대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조선 시대 미인을 표현한 화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김홍도와 함께 조선 시대 풍속화의 쌍벽을 이루는 신윤복이에요.

〈미인도〉

섬세하다
곱고 가늘며 매우 찬찬하고 세밀하다.

쌍벽
여럿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신윤복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손꼽히고 있어요. 신윤복은 여인이나 양반들의 모습을 많이 남겼어요. 섬세한 표현은 지금 봐도 놀랍기만 하네요.

〈단오풍정〉

〈쌍검대무〉